DOI: https://doi.org/10.16879/jkca.2023.23.3.001 한국지도학회지 23권 3호 2023(1~13)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과 동해 표기: 학술 논의의 진전과 향후 주제

주성재*

Sustainable Geographical Naming and the Naming of the East Sea: Progress of Academic Discussions and Further Research Topics

Sungjae Choo*

요약 : 이 연구는 동해 표기에 관한 학술 논의의 역사와 내용을 정리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지명 사용의 환경 변화에 비추어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제안하는 목적을 갖는다. 지난 30년의 학술 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동해 표기 분쟁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을 사회정의,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의 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 해법으로서 두 이름을 함께 쓰는 방법의 가능성과 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분쟁지명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 증진, 문화적 가치 존중과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 영향력 있는 MZ세대의 등장, 지구적 환경에 대한 관심사 증가 등에 주목하였고, 각 변화의 단면을 고려하는 연구 주제가 제안되었다. 향후 연구의 지향점은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의 요소로 정리된다.
주요어 : 동해/일본해, 분쟁지명, 지명 병기, 사회정의, 문화유산, 디지털 기술,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summarize the history and contents of academic discussions on the naming of the East Sea, evaluate their achievements, and propose topics that require further research in light of new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oponymic use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academic discussions over the past 30 years is to hav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 the disputes of the East Sea naming and the need to resolve them, with the development of discourses of universal human values such as social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As a realistic solution, discussions were conducted on the feasibility and benefits of the use of the two names together. As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oponymic uses, this study took specific note on the advancement of the potential of digital technology to contribute to resolving dispute names, the trend of respecting cultural values and demanding social changes, the emergence of the influential MZ generation, and the increased interest in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is summarized as elements of sustainable geographical naming that can be accepted by all generations.
Key Words : East Sea/Sea of Japan, Disputed name, Dual naming, Social justice, Cultural heritage, Digital technology, Sustainable geographical naming

I. 서론

2020년 11월, 전 세계 바다에 명칭이 아닌 '숫자로 된 고유 식별자(numerical identifier)'를 사용하기로 한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이하 IHO)의 결정은 한국과 일본 각 정부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왔다. 'Japan Sea'가 수록된 이전 문서(S-23)의 처리에 대한 문장 해석의 차이였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sjchoo@khu.ac.kr)

관한다"는 문구에 집중하여 일본해 단독 표기가 유지된다고 해석하였고, 한국은 이 문구를 수식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진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에 방점이 있다 보고 이 문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역사 자료로 남게 되었다고 해석하였던 것이다.[1)]

IHO의 결정은 해양과 수로 업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하는 국제기구가 20년 이상 고민한 결과로 내린 해법이라는 점에서 동해 표기 관련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바다 이름이 남아있는가 아닌가의 해석 차이에서 보듯이, 명칭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서 기존 문서의 명칭이 유효한가 아니면 다른 명칭을 써야 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것은 IHO가 '현대화(modernization)'라는 기치 하에 도입한 디지털 표식을 초월하는 고유 명칭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명칭을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의 많은 사용자에게 표기의 가이드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관찰되는 동해 표기에 관한 담론, 나아가서는 바다 이름 사용의 보편 원칙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가 심화되기를 기대하는 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동해 명칭 확산'이라는 정책과 전략의 실천 영역과 별개로 추진되어야 하는, 하지만 그와 연계하여 발전해야 하는 학술적 영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학술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전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주성재, 2021:14-15). 첫째, 동해 수역의 표기는 이 바다를 둘러싼 국가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분쟁의 상태에 있다. 둘째, 표기 분쟁은 해결의 당위성을 가지며, 당사 국가뿐 아니라 명칭의 사용자인 세계가 함께 고민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전제는 동해 표기에 대한 학술 논의가 해결 지향적으로, 해결이 가져오는 혜택을 공유하면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동해 표기에 관한 논의는 고지도에 나타나는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분쟁지명의 해결이라는 일반화된 화두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사례에 기반한 해결의 담론과 방법론으로 진화해왔다고 평가된다(Choo, 2023). 현재까지 논의의 잠정 결론을 내린다면, 각각의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모두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길이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주성재, 2021:137).

이 연구는 동해 표기에 관한 학술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각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주제가 어떤 맥락을 갖고 있으며 이후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추적한다. 현시점에서 논의되는 주제와 연결하여 평가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안한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으로 집약된다.

II. 동해 표기 학술 논의의 발전과 평가

1. 동해 표기 학술 논의의 정립

동해 표기 관련 학술 논의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에 열린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동해 명칭 이슈를 제기한 이후, 이 주제를 학술 측면에서 수용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 것이다(이기석, 1998:542). 여기서 발표된 네 편의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되어 전파되었고 학술연구의 효시를 이루었다. 한국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이찬, 1992), 서양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수역의 명칭(한상복, 1992), 정치지리학 시각에 기반한 제3의 명칭 제안(임덕순, 1992), 지리적 발견 시대 동해 수역에 대한 인식과 명칭(이기석, 1992)이 그것이었다. 이 중 두 편의 논문에서 제3의 명칭을 논의한 것은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2)]

이후 초기의 논의는 동해 명칭의 역사성을 밝히고 확인하는 연구로 전개되었다. 이기석(1998)은 국내 문헌, 국내외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수역의 표기를 일본해와 비교하였고, 이에 근거해 향후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제안하였다. 김덕주(1999)는 삼국시대 이래 동해에 대한 인식, 일본해의 일본 내 수용, IHO의 바다 이름 표준화의 배경 등을 두루 다루었다. 김신은 동해 표기의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였고(김신, 1998; 2001), 일제하의 지명개칭과 연결하여 일본해 표기가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김신, 2003). 아울러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양보경, 2004), 각국 도서관에 소장된 서양고지도 407종에 표기된 동해 수역 조사 연구(이상태, 2004) 등이 이어졌다.

동해 표기 학술 논의의 영역 확대는 이기석(2004)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마땅하다. 그는 사용되는 명칭을 모두 존중할 것을 권고한 유엔과 IHO의 결의에 주목하였고,[3)] 동해 명칭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하여 지명 표준화

국제기구가 규정한 이 결의를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제관계 지리학의 영역을 개척하여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명칭에 대하여 국제법상으로 유효한 결의안 연구를 국제법 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연구는 바다 이름 표준화에 대한 일반화된 논의로 발전하였다. 주성재(2005)는 지명 표준화의 세 가지 논점, 즉 역사적 합법성 논의, 토착지명과 외래지명 논의, 명칭 병기의 문제를 도출하고, 각 논점을 동해 표기에 적용할 가능성을 논술하였다. 이 논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바다 이름 유래의 유형화에 근거하여 동해 표기를 둘러싼 논리를 평가한 연구(Choo, 2007)와 토착지명(endonym) 동해(Donghae)가 한반도쪽 바다의 명칭으로 유효함을 논술한 연구(Choo, 2009)로 이어졌다.[4] 이중 후자의 연구는 당시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이하 UNGEGN)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던 주제를 동해 표기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 지리학적 지명연구와 동해 표기

2010년대 들어와 동해 표기 연구는 인간과 지역 또는 장소의 관계성을 규명하는 지명연구와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언어학적 지명연구와 차별화되는 '지리학적 지명연구'라 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지리적 표현으로서 지명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반화 및 유형화, 지명 사용자와 사용대상을 기준으로 한 지명 분류와 그 표기법,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지명 표준화의 방법, 지명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수단 등의 주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주성재, 2011:444).

동해의 지정학적 의미를 바탕으로 동해 표기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Choo, 2010)가 있었지만, 동해 표기를 지리학적 지명연구와 연결시키는 연구 주제는 주성재(2012)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개최된 IHO와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주도한 동해 표기 논쟁과 총회에서 주목받았던 주제를 바탕으로 네 가지 연구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러 이름을 함께 쓰는 복수 지명 사용의 본질과 의미, 추세, 방법 등이다. 지명에 담긴 정체성과 주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여 복수 지명 사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복수 지명 각각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과 정체성, 각 지명이 지칭하는 대상과 스케일의 복잡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국이 복수 지명 사용의 근거로 활용하기 원하는 IHO와 유엔의 결의[5]에 대하여 일본이 주장하는 반론, 즉 동해 수역은 이 결의가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 국가의 주권 아래 있는 지형물"이 아니라는 논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동해에 주권적권리가 적용된다는 반론[6]에 추가하여, 근본적으로 각 바다의 정치지리적 특성과 주권 행사를 명칭 사용을 연결하는 연구, 바다를 분리하여 각각에 별도의 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의 타당성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동해 명칭을 정서적으로 밀착된 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관점이다. 유엔지명표준화 총회의 수차례 논의와 각국 사례의 영향을 받은 이 관점에 대해서는 그 명칭에 대한 정서적 밀착이 차별화되어 느껴지는 요인, '동해' 명칭과 연관하여 독특한 정서적 밀착을 느끼는 곳의 해역 한계, 정서적 밀착의 변화 가능성과 요인 등이 소주제로 제시되었다.

넷째, 지명 용어의 영역이다. UNGEGN은 지명 용어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명 표준화를 위한 용어사전(Glossary of Terms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용어사전에 추가가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고 제안하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병기(dual names 또는 dual naming)와 복수 지명(multiple names 또는 multiple naming)은 '동해'를 함께 쓰자는 한국의 제안에 선행되어야 할 용어로 판단되었다.

3. 동해 표기 학술 논의의 발전

초기 논의에서 촉발되고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화두가 더해지면서, 동해 표기 학술 논의는 몇 가지 주제로 집약되며 깊이를 더해갔다. 지명을 연구하는 국내·외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동참하면서 지리, 역사, 문화, 정치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사단법인 동해연구회가 매년 주최하는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는 좋은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7]

가장 주목할 주제는 지명이 가진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존중해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의 문제였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각 이름을 존중하고 사용하는 것이 지명 사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명제의 타당성을 논의·검증하고, 이를 동해 표기에 적용하는

일이었다(Choo, 2014; Stoltman, 2016; 2017).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지향하는 '정당한 몫'과 '공정한 이익'에 주목하였다. 어떤 지형물(동해 수역)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친근한 대상에 대한 감정과 기억이 담겨있는 명칭을 존중받는 것은 정당한 몫을 배분하는 일이며,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이 쌓여 있는 모든 명칭(동해와 일본해)을 인정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익을 실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해법으로서 복수의 명칭을 함께 쓰는 것(동해와 일본해의 병기)이 적절하다는 논리가 도출되었다(주성재, 2021:137).

평화는 갈등이나 분쟁의 해결이 가져오는 가치 실현과 연결되어 강조되었다. 지명 분쟁의 해결은 평화 달성의 중요한 요소이고, 동해와 일본해 병기의 해법은 이웃 국가 간 국제관계와 국제 협력에서 상호 혜택을 창출하고 각 이름에 담겨있는 문화유산을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Stoltman, 2016:16). 이러한 해법은 가치, 정의, 정서적 밀착과 인식, 문화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인간(human)' 중심의 지향성이라 이름 붙여졌다(Choo, 2014).

지명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그 해법으로 제시된 복수 지명 사용의 문제로 연결되었다. 첫 번째 중요한 논의의 주제는 복수 지명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복수 지명이 가져올 혜택이었다. 일본 학자의 현실적 제안(Kimiya, 2016)[8]에 의해 촉발된 이 주제는 이후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Choo, 2016), 이에 따라 동해 수역에 두 이름을 쓰는 것이 각 이름의 브랜드를 부각함으로써 평화의 가치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점(Hausner, 2017), 병기 해법의 진전이 모든 관련 국가에게 에너지와 기회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Choo, 2017)이 지적되었다. Stoltman(2018)은 몇 차례 논의를 종합하여 동해-일본해 병기가 국가 수준에서 일본과 한국 각각에 어떤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올 것인지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표 1).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담론의 진전이었다.

두 번째 주제로 주목받은 복수 지명 구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명이 동등한 위상을 부여받는 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두 이름 병기의 경우, 괄호 안에 또는 줄바꿈하여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이러한 병기가 사회정의와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두 명칭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서도 어떤 이름을 먼저 쓸 것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슬래시, 줄바꿈, 명칭 사용하는 곳에 각각 표기) 등의 이슈가 있다.

동해 표기 토론에서 수차례 제기되었고 이전 연구(주성재, 2005)에서도 지적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명칭이 갖는 균형의 정도에 따라 동해 수역의 표기 방법을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이해의 틀이 제시되었다(Choo, 2014; 2018). 한쪽 끝에 동해 단독 표기, 다른 한쪽 끝에 일본해 단독 표기가 있다고 볼 때, 중앙의 무게 중심점이 동등한 두 이름의 병기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보는 관점이었다(그림 1). 지난 30년의 추세는 오른쪽 끝의 일본해 단독 표기 지점에서 점점 중앙으로, 즉 그림의 5에서 3으로의 이동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표기는 중앙을 넘어 동해가 우세한 위상을 차지하기도 하고, 왼쪽 끝의 동해 단독 표기를 채택하는 경우도 발견된다.[9] 이 연구는 괄호에 들어간 East Sea(그림의 4에 해당)를 지도제작사의

표 1. 스톨트만(Stoltman) 교수가 제시한 동해-일본해 병기의 혜택

일본이 받을 혜택	한국이 받을 혜택
•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외교적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세계의 눈에 비추어질 것이다. •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과 강력한 지역적 국제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데에 한걸음 진전해 나가는 셈이 될 것이다. • 일본은 아시아 식민지 역사로부터의 윤리적 회복을 위한 진전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래된 이슈를 해결하는 셈이 될 것이다. • 병기 이슈의 종말은 외교적 안도가 될 것이다. 두 나라는 동해 수역의 생태적 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중요한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 한국은 오랫동안 품어 왔던 동해 명칭에 대한 애착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지도와 문서에 일본해가 우세하게 사용되어 온 추세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조화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외교적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세계의 눈에 비추어질 것이다. • 한국은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깨달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동해 수역은 양국 간 상호 책임의 대상으로서 더욱 순조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주: Stoltman(2018:25-26)의 논의를 주성재(2021:140-141)에서 인용한 것을 필자가 표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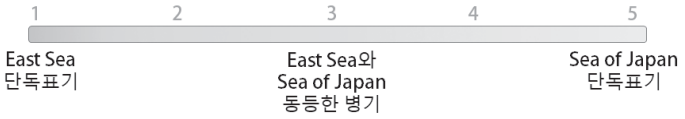

그림 1. 동해 표기 방법을 연속체로 보는 이해의 틀

주: Choo(2018:37)의 다이어그램을 주성재(2021:145)가 단순화한 것을 인용함.

표기 정책과 지명 사용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삼자는 전략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동해와 함께 인식되는 문화유산의 본질은 역사학자 이영춘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그는 동해 바다와 강한 인연으로 맺어 있는 한국인의 삶에 관한 다양한 역사와 흔적을 발굴함으로써 그 바다와 명칭에 대한 정서적 밀착을 보여주었다. 동해 신(神)에 대한 제사, 문학작품 등에 나타난 '동해' 명칭 사용의 용례(Lee, 2011), 문무왕, 용왕과 토끼, 처용, 탈해왕, 연오랑과 세오녀, 동해 관음 등 동해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Lee, 2013), 조선 시대 연구된 형이상학적 동해무조석론(東海無潮汐論)(Lee, 2014), 동해에 대한 국가, 지역공동체, 민중의 제사(별신굿) 전통(Lee, 2015), 동해의 탄생과 성장, 전쟁, 시련과 고통(Lee, 2017)이었다.

'동해'의 의미와 지칭 영역에 따라 동해에 차별적으로 존재한 문화유산을 밝힌 연구(김순배, 2013)도 있다. 이 연구는 동해 명칭이 고려 이전부터 구한말까지 역사적으로 보통명사, 국가명, 해역명, 민족 정체성의 재현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사용되었으며, 각 지칭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변천했음을 확인하였다. 주민의 삶과 밀착된 명칭을 '생계지명(living toponyms)'이라 칭하고, 이 개념에 기반하여 동해에 제3의 지명을 제안한 연구(김순배, 2020)[10]도 사용자의 문화유산을 중시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해 명칭에 담긴 문화유산의 탐구는 최근 그 중층적(multi-layered) 성격을 후기 구조주의 관점과 연계한 진전으로 이어졌다(윤지환, 2022). 이 연구는 문화유산으로서 지명이 사용자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 보고, 들뢰즈(Deleuze)가 말한 리좀(rhyzome)의 개념[11]을 도입해 설명하였다. 한반도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동해 명칭이 일본 교토 지역에 이식되어 고등학교 교가의 첫 구절로 채택되고 특별한 계기로 대중에게 연주된 것[12]은, 새로운 토양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형태와 속성을 변화시키고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리좀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례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동해 명칭 이슈를 또 다른 이론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밖에 동해의 명칭과 해역을 규정한 IHO 문서에 관한 연구가 있다. 동해 해역의 영역 설정 과정과 문제점(박경, 2020), 명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Ryu, 2020)이 주제였다. IHO는 이 두 연구가 발표된 해의 11월에 디지털 형식의 경계와 명칭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4. 평가

동해 표기 학술 논의는 서론에서 설정했던 전제에 충실하게 전개되었다. 동해 수역의 표기가 분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해결 지향적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해 표기가 특별한 관심 사항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분쟁 해결의 당위성을 모든 지명 사용에 적용되는 사회정의, 평화, 인권을 포함한 인류 보편가치의 담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세계의 사용자가 함께 고민할 이슈로 인식되었고, 다양한 분야 국내·외 전문가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중에서도 분쟁지명의 현실적 해법으로서 두 이름을 함께 쓰는 방법의 가능성과 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은 큰 진전이었다. 이것은 두 이름이 가진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모두 존중한다는 점에서 보편가치의 측면에서도 설득력 있는 대안이었다. 그러나 복수 지명 사용의 문제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지명을 함께 쓰는 방법이 지명 사용의 당사자가 가진 인식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세부적인 여러 방법이 각각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두 이름 사용에 놓여진 장애물의 본질과 이에 대한 대응, 두 이름 사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주제(Choo, 2018)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두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각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받게 될 혜택은 앞서 정리한 표 1의 내용을 뛰어넘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지원하는 고지도 발굴 연구는 여전히 의미 있다. 예를 들어 '동해'를 의미하는 'MARE ORIENTALE'가 표기된 1868년 미국 해군 장교 제작의 한반도 지도 발굴(동북아역사재단, 2021), 이 도면이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건 신부가 1846년 제작한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에 관한 연구(김종근, 2020)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외부인의 장소 인식이 반영된 서양 고지도의 지명이 갖는 역사성의 근거는 여전히 검증해야 할 소재라고 본다(주성재, 2021:42).

초기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해역의 지위와 명칭에 관한 국제법 분야의 연구, 나아가 국제관계 지리학 연구 분야의 개척(이기석, 2004)은 미진하였다. 바다는 명백한 지리적 실체라고 볼 때, 바다에 대한 인식과 이용, 주권과 영토의 문제를 명칭과 연결시키는 연구는 정치지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동해 관련 지명용어(주성재, 2012)가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이 발간하는 「지명 표준화를 위한 용어사전」의 업데이트 항목에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UNGEGN 산하의 지명용어집 워킹그룹의 목록에 '두 지명(dual names)'과 '복수 지명(multiple names)'이 "동일한 지리적 실체에 사용되는 두 개의(두 개 이상의) 지명.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여러 언어로 되어 지명 관리 기구의 승인을 받음"[13]이라는 정의로 포함된 것이다. 동해에 두 이름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한국으로서는 용어의 지원을 받게 된 성과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명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리학자의 참여로 「한국 지명 용어집」을 발간한 것(국토지리정보원, 2020)을 지명 용어 관련 연구의 성과로 기록할 수 있겠다.[14]

동해 표기 연구는 동해 명칭 확산을 위한 활동 30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학술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미래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심화될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키워드는 디지털 시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III. 새로운 환경의 전개와 동해 표기 학술 논의의 향후 주제

1. '새로움'의 요소

동해 수역의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분쟁지명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위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때, 중요한 것은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지난 30년의 연구 성과를 증폭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전개될 새로운 환경을 검토·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지명의 해결, 특히 동해 명칭 이슈에서 그 '새로움'의 요소는 무엇인가?[15]

첫째, 분쟁지명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소셜 미디어의 활용에 대한 방법론과 사례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라는 커다란 화두를 현실에서 분석 가능하고 활용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지명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명 논의가 가능해졌고(Kim, 2021), 양방향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메타버스의 활용방안도 제기된다(Kim and Shin, 2022; Lee, 2022). 이러한 발전은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의 대안을 제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적 가치 존중과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의 개성이 담긴 문화에 가치를 부여하는 추세는 소수자, 소수 민족, 소수 언어집단이 가진 문화의 존중과 보존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종차별에 대한 강한 반대, 불평등과 빈곤 해소에 대한 실질적 관심 등은 포용(inclusion)을 향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연결된다. 한 집단이 가진 명칭 사용의 관습과 사례는 충분히 존중받고 지지받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분쟁지명 해결을 위해 갖는 이들 변화의 시사점은 크다. 이러한 흐름은 소셜 미디어의 활발한 사용과 관련 있다.

셋째,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집단으로서 세대에 대한 주목이다. 세대 담론은 20세기 이후 순서를 이어가며 등장했지만, 현재 관찰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 출생)와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를 결합한 MZ세대의 독특한 특성이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소셜 미디어 사용에 능통하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전통보다는 경험과 감성을 추구한다. 사회적 가치나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매하는 영향력 있는 소비 주체로 등장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MZ세대는 분쟁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무관심할 수 있지만,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동해 명칭 이슈를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MZ세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이슈를 몰아갈 수 있다.

넷째, 지구적 환경에 대한 인류 공동의 관심사가 높아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의 거대한 영향력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인의 관심을 높인지 오래다. 인류가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는 2015년 유엔이 선언하고 각 회원국이 실행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대변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면 이것이 지명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추세를 반영할 때, 향후 동해 표기의 학술 논의는 어떤 주제를 설정할 것인가? 디지털 환경의 심화 발전, 세대 특성을 고려한 교육, 그리고 이를 종합한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다.

2. 디지털 환경의 심화 발전과 동해 표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에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형태로 개최된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세미나」는 상황에 걸맞게 "디지털 시대의 지명 표기(I, II)"를 주제로 삼았다. 이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 추세와 향후 연구 제안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가장 중요한 추세로 관찰된 것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의 지명 사용이 매우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Choo, 2020; 2021; Kim, 2020). 디지털 지도의 확대와 축소는 지명 표출의 여부, 화면상의 위치, 언어 등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시각적 구현의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지도 제공자의 정책이 작용할 수 있다. 지명의 선택은 지도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또는 수요 지향적 지도를 스스로 만드는 프로슈머[16]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동해 수역의 표기와 같이 복수의 지명이 갈등 또는 분쟁의 상태에 있을 때, 디지털 환경이 갈등과 분쟁의 완화 또는 해소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Choo, 2022). 이것은 복수의 지명을 지도 수요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구현할 가능성, 즉 필요에 따라 단독 표기 또는 다양한 방법의 병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지도 사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법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각 명칭을 기술적으로 균형 있게 구현하기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추세를 확인하고 지명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이다. 세미나에서는 방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영향력 있는 웹사이트로서 구글, 위키피디아, 유투브, 기술발전의 수용체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트위터, 틱톡, 인스타그램, 스토리맵, 로블록스, 덕덕고 등이 모두 언급되었다. 메타버스 콘텐츠로 동해 명칭을 채택한 연구(Kim and Shin, 2022), 소셜 미디어 트위터에서 'East Sea'를 검색어로 하여 동해 표기 현황을 분석한 연구(Kim, 2021)는 의미 있는 실험적 연구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은 분석의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바탕을 두어 분쟁 해결의 대안 제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분석에는 질적인 측면의 감성과 맥락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더라도 지명이 갖는 정체성 표현의 기능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Choo, 2022:6)

3. 세대 특성을 고려한 교육 현장에서의 동해 표기

앞서 논의한 디지털 환경 변화는 향후 사회의 주역이 될 MZ세대의 행동과 결정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활동 기반이 모바일 기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간정보 수집이 모바일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지리정보의 중요한 요소인 지명을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하는지, 기존의 아틀라스 지도 사용자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것은 지명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매우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Choo, 2020). 두 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명칭이 화면 확대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날 때 사용자는 각 명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 하나의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택할 것인지, 각 정체성에 대한 동등한 존중이 가능한지 등이 그 조사의 내용이 된다.

MZ세대 이후의 세대까지 확대하면, 교육현장의 사용자를 지향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지도에 나타난 지리정보의 최종 소비자는 학생이며, 교사는 그 소비를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지명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고 모바일 지도에 나

타난 지명의 사용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리고 학생은 많은 지리정보 중에서 지명을 어떻게 취사선택하는지는 미래 사회인의 소양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Choo, 2020).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웹사이트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때(Stoltman, 2020), 다양한 시각을 갖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지식과 판단 능력을 가르치는 것은 디지털 시대 교육에서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다(주성재, 2021: 167). 디지털 맵은 다양한 변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리적 상상력을 증진해 보다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와 학생 각각이 각각의 정체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지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4.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과 동해 표기: 연구 영역의 제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초기 논의에서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폭넓게 정의되었다(WCED, 1987:16). 한편 Encyclopedia Britannica는 지속가능성을 "공동체, 일련의 사회 제도 또는 사회적 관행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여, 그 필요 충족의 대상이 공동체와 사회 제도 전반의 운영과 관행이라고 구체화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자연과 생태계의 보전과 유지라는 규범을 뛰어넘어, 사회적 이슈와 경제발전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정의의 지원을 받으면,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sustainable geographical naming)'은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과 연결할 수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주요 부문에서 보편적 가치와 기초수요(basic needs)를 보장받는 것, 또는 구조적 장애에 직면하지 않는 것으로 수렴한다. 그 '주요 부문'은 인권, 사회정의, 건강, 교육, 문화유산의 유지와 향유, 다양한 견해의 표출, 이동성 등을 아우르는 확대된 영역이다. 이러한 요소를 지명의 본질과 특성에 대입하면,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은 다음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라 정리된다(Choo, 2023).

- 지명이 장소 또는 지형물을 공유하는 집단의 합의된 인식과 정체성을 반영한다.
- 지명이 현 세대의 모든 영역 사용자에게 수용 가능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모든 영역 사용자에게도 수용 가능하다.
- 지명이 과거로부터 전수되고 미래로 전달될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된다.
- 한 사회 또는 언어권의 지명이 갖는 의미와 정체성이 다른 사회 또는 언어권에서 존중받고 이를 위한 표준화의 방법과 표기법이 채택된다.
- 장소 또는 지형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부여된 다른 형태의 지명이 존재할 경우, 공동의 명칭으로 표준화하는, 또는 각 지명을 모두 존중하는 기제가 존재한다.

필자는 향후 동해 표기 관련 학술 논의에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의 다섯 가지 요소를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각 요소에 해당하는 동해 표기의 연구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동해 수역의 표기는 이 바다라는 지형물을 공유하는 국가, 민족, 또는 집단의 합의된 인식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명칭과 표기의 방법이 도출·제안되는 연구를 진행한다.
- 현 세대의 모든 영역 사용자에게 수용 가능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모든 영역 사용자에게도 수용 가능한 동해 표기 방법(동해, 일본해, 두 이름의 병기, 또는 제3의 이름)의 도출을 지향한다. 그 방법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동해(일본 측에서는 일본해) 명칭이 가리키는 영역과 각 명칭에 내재된, 과거로부터 전수되고 미래로 전달될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는 명칭의 갖는 풍성함을 더해주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 한국어 '동해'(일본어 '니혼카이') 명칭에 담긴 의미와 정체성이 다른 언어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조사한다. 각 언어권의 교육현장에서 동해 표기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동해 표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제안한다. 각 지명 사용자의 인식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을 연구한다. 분쟁 각 주체의 논의에 제약을 주는 요인을 밝혀낸다. 각 명칭에 담긴 기억, 장소 인식, 담론, 지원 집단 등으로 구성된 비판지명학의 시각(주성재, 2019)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발전은 유엔이 제안한 지속가능발전 목

표(SDGs) 달성의 노력과 연결하는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목표 4(질 높은 교육), 목표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이 직접적인 대상이다. 목표 4의 타깃 4.7(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은 목표 11의 타깃 11.4(세계 역사, 자연 유산의 보호), 목표 16의 타깃 16.3(통제 규칙 촉진과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확보), 16.7(대응적, 포용적, 대표성 있는 의사 결정), 16.8(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 강화), 16.10(정보에 대한 공공의 접근 확보와 근본적 자유의 보장)과 연결되어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지명 분쟁 해결의 목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주성재, 2021:204-205).

IV. 결론

동해 표기는 여전히 국민적 관심사의 영역에 속한다. 최근 사례로는 2023년 9월 실시된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미국 해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해 수역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것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촉발된 국민적 반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탄과 시정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미국 해군의 표기는 미국지명위원회(USBGN)의 데이터베이스에 규정된 표준 명칭을 따르는 것이므로, 표기의 수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지명위원회가 'Sea of Japan' 단독의 표준 명칭을 사용하는 배경, 즉 "하나의 지형물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명칭은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선정"하는 원칙의 문제점을 토론하여 다른 정체성을 가진 다른 명칭을 함께 고려하는 논리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동해 표기에 관한 학술 논의의 역사와 내용을 정리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지명 사용의 환경 변화에 비추어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제안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을 알리는 30년간의 활동과 맞물려 학술 논의는 연구의 영역과 깊이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된다. 가장 큰 성과는 동해에 표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분쟁의 해결이 필요함을 사회정의, 평화,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의 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담론에 기반하여 현실적 해법으로서 두 이름을 함께 쓰는 방법의 가능성과 혜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래의 흐름을 내다볼 때, 디지털 기술의 확대는 지명 사용의 유연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표기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쟁지명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 예측되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을 갖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지식과 판단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동해 표기 학술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명 사용'의 요소와 맞추어 진행할 것이 제안된다. 합의된 인식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든 영역의 사용자에 수용 가능한 표기의 방법을 고안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하여 풍성한 담론으로 발전시키는, 해결 지향의 연구가 그것이다.

동해 표기는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외교적 논의와 결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슈이다.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동해 표기 연구에 정치학과 외교학의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리학의 지명 연구를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연구 주제를 제안하였다. 동해 표기는 근본적으로 지명 표기의 문제이므로 그 해결의 논리는 지명연구의 결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론(주성재, 2012:880)은 이 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시 10년이 지난 후, 동해 표기 확산 40주년을 맞아 이 연구가 제안한 주제가 구체화되고 적용되어 동해 표기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註

1) 채택된 제안서에 기술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S-23 is kept publicly available as part of existing IHO publications to demonstrate the evolutionary process from the analogue to the digital provision of limits of oceans and seas."
2) 임덕순(1992)은 청해(Blue Sea), 코니해(코리아와 니폰의 합성) 또는 재코해(재팬과 코리아의 합성), 또는 러시아를 고려하여 코니루해 또는 재코루해를 제안하였다. 한상복(1992)은 Orient Sea를 제안하였다.
3) 공유하는 바다에 다른 형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

을 때 단일 명칭으로 합의할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이름을 존중하라는 IHO 결의 A4.2.6와 유엔지명표준화 결의 III/20을 말한다.

4) 이 연구는 토착지명 동해는 한반도쪽 바다에 대한 명칭으로, 마찬가지로 日本海(にほんかい)는 일본 열도쪽 바다에 대한 토착지명으로 유효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장소인식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이 어디까지일 것인가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5) 미주 3) 참조

6) 동해는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122조가 규정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주권적권리(sovereign rights)'가 인정되므로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리적 실체"이며, 병기를 권고하는 이 결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박노형, 2009).

7) 2013~2017년 기간의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바다, 바다 이름, 지중해적 평화"(2013), "바다, 바다 이름, 동아시아 평화"(2014), "바다 이름: 유산, 인식, 국제관계"(2015), "바다와 섬: 사람, 문화, 역사, 미래를 연결하다"(2016), "지명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달성"(2017)

8) 도쿄대학의 키미야 타다시(木宮正史) 교수가 제22회 바다 이름 국제세미나(2016)에서 한 다음의 제안이다. "한국이 동해를 함께 표기하자고 하려면 일본과 세계에게 그러한 도전(두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이 가져다줄 혜택을 설명함으로써 그 도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Kimiya, 2016:191)."

9) 동해 우세 표기(그림의 2에 해당)의 대표적인 경우로 미국 지리학자 드블라이에(De Blij) 등이 집필한 교과서(De Blij *et al.*, 2010)에 삽입된 지도, 동해 단독 표기를 채택한 경우로는 이탈리아 리플로글 글로브(Replogle Globes)가 제작한 지구본이 인용된다.

10) 이 연구가 제안한 제3의 명칭은 '부상해(扶桑海),' '창해(蒼海),' '대동해(大同海)'이다.

11) 리좀은 줄기가 뿌리와 비슷하게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땅속줄기 식물을 가리키는 식물학적 용어인데, 이를 이분법적 대립에 의해 발전하는 서열적 구조와 대비되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관계의 모델로 사용한 것이다. 다음 문헌을 인용하였다. Deleuze, G. and Guattari, F., 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2)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으로 시작하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코시엔 야구대회 본선에서 연주된 사건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성재(2021:157-158)를 참조할 것.

13) 영어로는 다음과 같다. "Two (or more) names for the same feature; usually, but not always, in different languages and having the approval of a names authority."

14) 이 책자는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144개의 지명 용어를 과학적 방법으로 추출하고 한국 지명 연구의 논의와 사례에 맞추어 정의한 것으로서, 각국의 언어환경에 특화된 지명 용어집 제작이 중요함을 UNGEGN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15) 이하 이 절의 논지는 Choo(2022)를 수정·가필하였다,

16) 소비자가 제품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여 행사하는 능동적 소비자의 시대, 즉 '프로슈머(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예측(1980, 제3의 물결)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20, 「한국 지명 용어집」,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김덕주, 1999, "동해 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6(2), 1-26.

김순배, 2013, "동해 지명의 의미'들'과 영역'들'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25(3), 99-131.

김순배, 2020, "동해, 이름의 정치학과 지리적 상상," 문화역사지리, 32(3), 51-69. http://dx.doi.org/10.29349/JCHG.2020.32.3.51

김신, 1998, "동해 표기의 역사적 소고," 경영사학, 13, 265-284.

김신, 2001, "동해 표기의 역사적 과정," 경영사학, 16, 199-222.

김신, 2003, "일제하 동해와 지명개칭사례 연구," 경영사

학, 18, 279-294.

김종근, 202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연구: 전래 과정과 저본지도 탐색 및 지명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2(1), 133-162. https://doi.org/10.22787/oldmap.2020.12.1.006

동북아역사재단, 2021,「서양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박경, 2020, “일본 외무성 조사 자료를 통한 동해지명의 역사적 변화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20(1), 1-12. https://doi.org/10.16879/jkca.2020.20.1.001

박노형, 2009,「동해지명에 관한 국제법적 기본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과제 연구보고서.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16(1), 89-111.

윤지환, 2022, “교토국제고 교가를 통해 본 ‘동해’ 지명의 중층적 문화유산,” 대한지리학회지, 57(2), 119-139. https://doi.org/10.22776/kgs.2022.57.2.119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대한지리학회지), 27(3), 278-283.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33(4), 541-556.

이기석,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 동해 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39(1), 1-12.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6(1), 157-164.

이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대한지리학회지), 27(3), 263-267.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에서 본 동해 지명,” 지리학(대한지리학회지), 27(3), 268-271.

주성재, 2005,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원리와 동해 표기 문제,” 지리학논총, 45, 1-16.

주성재, 2011, “유엔의 지명 논의와 지리학적 지명연구에의 시사점,” 대한지리학회지, 46(4), 443-465.

주성재, 2012, “동해 표기의 최근 논의 동향과 지리학적 지명연구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7(6), 870-883.

주성재, 2019, “다차원적 비판지명학 연구를 위한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4(4), 449-470.

주성재, 2021,「분쟁지명 동해: 현실과 기대」, 서울: 푸른길.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대한지리학회지), 27(3), 272-277.

Choo, S., 2007, The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a nam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justifying the name East S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745-760.

Choo, S., 2009, Endonym, geographical feature and perception: The case of the name East Sea/Sea of Japa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5), 661-674.

Choo, S., 2010, Geopolitics of the East Sea and the issue of its naming,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10(2), 1-11.

Choo, S., 2014, Bringing human into the game: A way forward for the East Sea/Sea of Japan naming issue,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14(3), 1-13. http://dx.doi.org/10.16879/jkca.2014.14.3.001

Choo, S., 2016, The naming issue: Towards the future, *Proceedings, The 22n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October 26-29, Gyeongju, Korea, 225-227.

Choo, S., 2017, Sea naming issues: What have we discussed and achieved so far, and what shall we do further?, *Proceedings, The 23r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October 22-25, Berlin, Germany, 22-25.

Choo, S., 2018, The essence and practicality of dual naming: Considerations toward the East Sea/Sea of Japan dual naming,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18(3), 33-43. https://doi.org/10.16879/jkca.2018.18.3.033

Choo, S., 2020, A new normal for the name East Sea in the digital era, *Proceedings, The 26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Geographical Naming in the Digital Era*, September 17-19, Gangneung, Korea, 1-7.

Choo, S., 2021, The name East Sea in the digital era: Season 2, *Proceedings, The 27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Geographical Naming in the Digital Era II*, October 14-16, Gangneung, Korea, 2-7.

Choo, S., 2022, What is 'new' in the resolution of disputed names?, *Proceedings, The 28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 New Horison Toward the Resolution of Disputed Names: A Specific Focus on the East Sea/Sea of Japan*, September 22-24, Pohang, Korea, 1-7.

Choo, S., 2023, Sustainable geographical naming revisited, *Proceedings, 29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October 18-21, Depok, Indonesia, 3-8.

de Blij, H.J., Muller, P.O., and Winklerprins, A.M.G.A., 2010, *Geography of the World*, 4th ed., Hoboken: Wiley.

Hausner, I., 2017, Toponyms and cultural heritage: A peaceful partnership of forced alliance?, *Proceedings, The 23r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October 22-25, Berlin, Germany, 29-35.

Kim, Y.H. and Shin, D.Y., 2022, East Sea as a digital content with metaverse: A conceptual talk, *Proceedings, The 28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 New Horison Toward the Resolution of Disputed Names: A Specific Focus on the East Sea/Sea of Japan*, September 22-24, Pohang, Korea, 23-36.

Kim, Y.H., 2020, Specificities of map-making and geographical naming in the digital era, *Proceedings, The 26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Geographical Naming in the Digital Era*, September 17-19, Gangneung, Korea, 15-24.

Kim, Y.H., 2021, Towards sea name understanding in social media: An analysis of East Sea tweets on Twitter, *Proceedings, The 27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Geographical Naming in the Digital Era II*, October 14-16, Gangneung, Korea, 20-36.

Kimiya, T., 2016, Discussion, *Proceedings, The 22n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Future*, October 23-26, Jeju, Korea, 189-192.

Lee, B.M., 2022,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s in the post pandemic era and their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naming, *Proceedings, The 28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 New Horison Toward the Resolution of Disputed Names: A Specific Focus on the East Sea/Sea of Japan*, September 22-24, Pohang, Korea, 37-54.

Lee, Y.C., 2011, East Sea in Korean lives through the ages, *Proceedings, 17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ugust 17-20, Vancouver, Canada, 135-149.

Lee, Y.C., 2013, Korean myths and legends related with the name of the East Sea, *Proceedings, The 19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ea, Sea Names and Mediterranean Peace*, August 22-24, Istanbul, Turkey, 119-136.

Lee, Y.C., 2014, The theories of no tide in the East Sea in premodern Korea: From metaphysics to science, *Proceedings, The 22n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October 26-29, Gyeongju, Korea, 93-110.

Lee, Y.C., 2015, The tradition of sacrificial rituals for the East Sea in Korea, *Proceedings, The 21st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ea Names: Heritage, Percep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ugust 23-26, Helsinki, Finland, 13-27.

Lee, Y.C., 2017, Some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the East Sea, *Proceedings, The 23r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October 22-25, Berlin, Germany, 37-58.

Ryu, Y.T., 2020, Reflections on the naming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East Sea/Sea of Japan at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and the alternatives for the revision of S-23,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Geographers*, 9(1), 223-235. https://doi.org/10.25202/JAKG.9.1.15

Stoltman, J.P., 2016, The East Sea: Peace, education and geographical naming, *Proceedings, The 22n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Future*, October 23-26, Jeju, Korea, 1-10.

Stoltman, J.P., 2017, Geographical naming: Reflections on peace, cooperation and social justice, *Proceedings,*

The 23rd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Achieving Peace and Justice Through Geographical Naming, October 22-25, Berlin, Germany, 5-14.

Stoltman, J.P., 2018, Dual naming of geographic features: The search for mutual benefits, *Proceedings, The 24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Dual Naming: Feasibility and Benefits*, August 26-29, Gangneung, South Korea, 15-24.

Stoltman, J.P., 2020, Dual named geographical features: A pathway to critical study with digital information, *Proceedings, the 26th International Seminar on Sea Names: Geographical Naming in the Digital Era*, September 17-19, Gangneung, Korea, 11-13.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Encyclopedia Britannica, "Sustainability", https://www.britannica.com/science/sustainability(2023.09 검색)

교신: 주성재, 02447,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이메일: sjchoo@khu.ac.kr)

Correspondence: Sungjae Choo,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Seoul, 02447, Repulic of Korea (Email: sjchoo@khu.ac.kr)

투 고 일: 2023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11일
투고확정일: 2023년 12월 13일